

바람소리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몹시 춥다는데 화심마을의 겨울준비는 단단히 하겠습니까? 여기 아파트는 걱 따듯합니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불소리가 들립니다. 그 울림에 공명할 어떤 성스러운 분이 부명한 불사로 내려와 마음을 비웁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는 선원에 새로 조성한 부처님 세분의 절안 법회가 있었습니다. 넓은 법당과 복도까지 가득한 사람들이 한 삼천명은 넘게 보였는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소리로 법당은 법음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진동수에 따라 마음이 울리며 형인 할 수 없이 성스러운 빛을 타고 저는 몸이 곧

의 광음에도 부딪치고 부시지며 반짝이는 빛이 내립니다. 그 빛은 영혼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바라나시의 광물처럼, 그림을 통해 저는 이렇게 꿈꾸고 희망하며 세상의 모든 분들이 그 빛에 당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마음 가운데 빛과 소리가 있고 그 원형을 따라가면 마음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살님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림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베푸는 따듯함 영혼을 순수케 하는 빛

추선 채 하늘에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에 비해 천정이 낮아 보이는 지하 법당에서, 빛바루나 기와집 안에 사할 형상이 있는 저의 그림을 보시고 '부처님이 답답하시겠다' 하시던 보살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빛속 속이나 들 불꽃 사이에 계시는 그림을 그리면 부처님이 시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생각하시는 자상하신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람과 집이라는 편견과 틀에 얽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 속에 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풍이 장에 마루에 앉으면 부처님의 새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종경소리,

인정어려워 묶이지 않고 매 순간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깨우침을 주시는가 봅니다. 만다면 언제나 밤을 새우시는 보살님에게서도 세계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진리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이웃에게 따듯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살님, 건강의 비결 하나는 많이 걷고 또 신맛나는 음식이나 과일먹는 거라고 합니다. 차 조금만 타시고 많이 걸으세요. 신것도 드시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 화상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기 2539년 설날 하순에 하수 경 합장

인연

작정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마음은 바쁘고 손이 두께가 아니라 한 대어섯개를 있었으면 하고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또 속상한 일이 적지 않지만 그저 참을 '인(忍)'자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렇게 죽죽 눌러가며 살다 터져버릴 때가 있다. 대부분 남편이 화풀이 대상이 된다.

남편은 내가 극도로 화를 내면 '아이고 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절을 한다. 절하는 모습 보면서 그만 화가 사르르 녹아 버린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10년이다.

부부들이 한 집에서 살다보면 사실 싸움 때가 있게 마련이다. 나는 부부들에게 그런 때마다 서로에게 합당하고 절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단점을 증중한다는 뜻으로 공손히 절을 하는 남편(또는 아내)에게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내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말인가. 신혼 초 전세로 살다가 토지 분양을 받게 되었다. 분양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팔팔매자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용자를 받아 해결했고 2년전에는 3층 집까지 지었다. 지금은 빛도 거

의 다 갖아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 그것은 모두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불심 덕분이 아닌가 한다. 시할머님의 손주(남편)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손주의 와이셔츠와 양말은 늘 당신이 손수 빨래를 하신다. 직장 생활로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도와 주신다고 시어머님은 밤낮으로 사랑을 행해 주신다.

농한 겸손하게 입고, 한돈 두푼 아꼈다. 40이 넘는 여자는 어느 정도 치장을 하는 것이 예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얼굴 때만질 시간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 화려하게 보일 수는 없었지만 나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내 얼굴에 나타나 있길 바란다. 가끔 길에서 화려한 화장과 치장을 한 부인들을 만난다. 젊은 모습을 감추느라 진하게

화장보다는 자기 나이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을 헤아려 주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이 분들의 지극한 동보심으로 지금까지 큰 우환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드립니다. 98세의 시할머님이 지그시 눈을 감고 영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찡하고 든든하기 그지없다. 누군가 40이 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난 지금도 화장을 안한 맨 얼굴로 다니다. 웃도가

화장을 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해서 늙어가는 모습을 감출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자기 나이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자기 위주보다 남을 생각해 주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사람에게서 진실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불일보러 서울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했다. 배웅하는 뒷모습에 '부처님, 남편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보살과 주세요' 기원드렸다. 이렇게 광범한 주부로, 특출나지도 못한 내가 별로 알릴 것도 없는데 주부 신행당원에 쓰게 되어서 그저 부끄럽다. 다만 앞으로 시할머님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내조 잘하고 아들 동업이 잘 키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부처님께 서원드린다. 허위 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 One who is an accomplished great ls, whose passions are destroyed and whose misbehaviour has ceased, thou shouldst serve with other food and drink, for this is the field for one who looks for good works. 완전한 사람인 큰 선인(大仙人), 번뇌의 더러움을 다 없애고, 나쁜 행위를 소멸해버린 사람에게는 다른 음식을 주어야

그것은 마름내 공덕을 바라는 이외 복밭이 될 것이다. ◆ To whom then, O gotama, shall I give this rice-milk? so said Kasibharadvaga. I do not see, O Brahmana, in the world (of men) and gods and Maras and Brahman, amongst beings comprising gods and men, and Samanas and Brahmanas, any by whom this

rice-milk when eaten can be properly digested with the exception of Tathagata, or a disciple of Tathagata. Therefore,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O Brahmana, thou shall throw this rice-milk in(a place where there is) little grass, or cast it

into water with no worms, so said Bhagavat. '그러면 고타마여, 이 우유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 바라다비자가 말했다. '바라문이며, 신, 악마, 범천(梵天)들이 있는 세계에서 신, 인간,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여러 중생 가운데 완전한 사람(如来)과 그의 제자를 배움고는, 아무도 이 우유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바라문이며, 이 우유죽은 산 풀이 없는 곳이나 생물이 없는 물속에 버려라' 스승이 답했다. '네 주인, 풍서자, 소유자, 'misbehaviour' 부정한 행위, 'Brahmana' 바라문(바라문), 'Tathagata' 여러, 참사탄(바라문)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람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전집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종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 매트 매트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비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년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천백의 폭이 있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55

기린은 목이 길고 사자는 용맹스럽지만...

원(圓)에는 모서리가 없다. 아니, 모서리가 많아서 오히려 모서리가 없어진 게 원이다. 세모꼴엔 모서리가 세 개 있다. 네모엔 네 개, 다섯모엔 다섯 개...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끝은 점점 원에 가까워지고 무한대에 이르면 마침내 모서리 없는 원이 된다. 그래서 원은 원융(圓融)이다. 입체물 가운데 모서리가 없는 게 구(球)이다. 사면체, 유면체로 늘어나다 보면 점점 공 모양이 되고 나중에는 모서리도 꼭지점도 없는 둥근 공이 된다. 그래서 공은 길리는 자리가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礙)이다. 기린은 동물 중에 목이 가장 길다. 코끼리는 동물 중에 코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표범이나 치타는 달리기에서 으뜸 간다. 사자나 호랑이는 그 용맹 때문에 백수의 왕이 된다. 그렇듯이 모든 동물은 그 나름대로 생존에 필요한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이고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각자 살아 남기 위해 신체적 장점을 발전시켜 왔다. 그에 비하면 인간은 어떤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생존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에서 가히 만물의 영장이다. 달리기에선 표범만 못하고 용맹에선 사자에 뒤지고 냄새 맡기로서는 개보다 둔하지만 모든 특징을 고루 다 갖추었으므로 오히려 특징이 돋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끝에 비유하자면 원이나 공에 해당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거의 종점에 다다른 듯 싶다. 현대과학 문명을 일구어낸 그 눈부신 창의력을 볼 때 진화의 극한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종점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아니, 종점에 당도한 인간은 그야말로 극소수라고 하는 편이 옳다. 왜냐? 완성된 원 또는 구의 경지-원융무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손꼽을 만큼 소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야말로 완성형이다. 불성론에 근거하면 완성 아닌 완성이야 해야 맞겠지만 화신으로서의 부처님은 분명 인간 진화의 마지막 끝이 된다. 모서리가 전혀 없는 원융무애 그 자체로서 모든 중생이 끝내는 갈아져야 할 사표(師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처님을 닮으려 하기보다는 게 짝난 맛에 더 심취하고 있다. 종점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만 진화의 걸음을 멈추고 '네로다' 하면서 이상·아만에 취해 산다. 마치 목이 길다고 뽐내는 기린, 냄새를 잘 맡는다고 뽐내는 개와 닮은 꼴로 사는 게 살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여의라고 누누이 강조하셨다. 돌 아닌 도리를 생활화하라고 역설하셨다. 그리고 몸소

원융무애를 실현해 보셨다. 너희가 조만간 완성의 문턱을 넘어 곧 원융의 경지에 다다를 것이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뜻에서 보여 주셨다. 모서리가 있는 것은 잘 구르지 못한다. 부딪힐 없이, 걸림 없이 구를 수 있는 것은 모서리 없는 공명이다. 공이어야만 자유자재로 구른다. 그대로 해탈의 경지로 무애의 경지인 것이다. 불법은 마음을 모나지 않게, 둥글게 쓰면서 살라고 가르친다.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게 마음공부이다. 세모꼴로, 네모꼴로 살지 않고 공처럼 사는 것-진화의 종점에 다가선 인간이면 누구나 부처님을 닮으려 해야 할 것이다. 불법은 늘 가까운데 있다. 협찬: 제주지원 법령제회